

##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김 지 은<sup>†</sup>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예비척도를 제작하여 743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요인분석한 결과, 대인지각에서는 10개의 요인구조, 대인감정에서는 8개의 요인구조, 대인소망에서는 9개의 요인구조가 발견되었다.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 신뢰도를 구한 결과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또 대인관계문제검사, 사회공포증, 편집증 척도들과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차이가 대인관계문제, 사회공포증, 편집증의 특성들을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대인반응척도가 신뢰할 만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활용방안과 연구의 한계점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현적 대인반응,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

---

김지은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이며, 조성호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4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김 지 은, (156-773)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우성아파트 306동 1410호

전화 : 02-537-0287, 010-9280-0287 E-mail : jieun6608@hanmail.net

상담과정 연구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볼 때, 접수면접에서 종결까지 상담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교류의 연속 과정으로 볼 수 있다(Anchin & Kiesler, 1982; Strong & Claiborn, 1982; Watzlawick & Weakland, 1977). 또 많은 상담자들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성공적인 상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Hill & Highlen, 1984; Horvath & Greenberg, 1986, 1989; Strupp & Hadley, 1979). 상담 관계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인관계 이론에 따르면,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은 각 상호작용자의 대인관계 행동이 동시에 상대방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상호작용자들간 행동의 상호적인 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개념은 상보성(complementarity)이다.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는 모든 대인관계 행동을 지배와 순종의

양극을 가진 통제(control) 차원과 우호와 적대의 양극을 가진 친애(affiliation) 차원에서의 한 위치로 볼 수 있으며, 통제차원에서는 상반되고(reciprocal), 친애차원에서는 상응하는(correspondent) 행동을 보일 때 상보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호적이고 지배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복종적인 반응이, 적대적이고 지배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복종적인 반응이 상보적인 상호작용으로 규정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김지은, 이장호 1994; 정남운, 1998; 조성호, 1995; Alpher & France, 1993; Bluhm, Widiger, & Miele, 1990; Dietzel & Abeles, 1975) 이 상보성을 중심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행동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보았었다. 실제 대인관계적 상호작용 과정은 Wagner, Kiesler와 Schmidt (1995)가 제시한 대인관계적 순환모델(interpersonal transactional cycle model)에서 잘 나타나 있다(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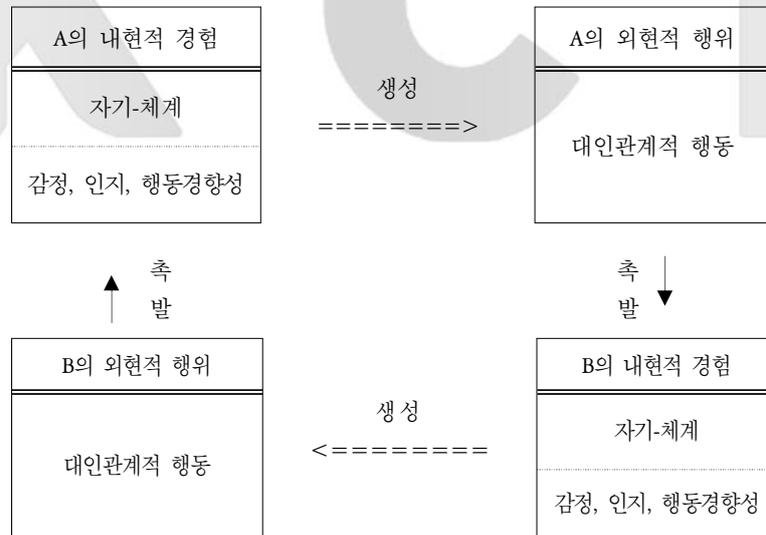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 상호작용 순환

1). 그림 1(Wagner, Kiesler, & Schmidt, 1995에서 재인용)을 보면, A의 외현적인 대인행동은 B의 내현적인 경험(감정, 인지, 행동경향성 등)을 촉발하고 그것은 B의 외현적 대인행동으로 나타나며, B의 외현적 대인행동은 다시 A의 내현적 경험(감정, 인지, 행동 경향성 등)을 촉발한다. 그리고 A의 내현적 경험은 A의 외현적 대인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상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A와 B의 외현적 행동들 간의 관계만을 연구하였다. 대인관계적 상보성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A의 외현적 행동 → B의 내현적 반응’과 같이 외현적 행동과 내현적 반응의 연결을 측정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Kiesler, 1987, 1991; Schmidt, 1994; 정남운, 1999).

그리고 상담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전이나 역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이나 역전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주로 상담 축어록을 보고 제 3자가 평정하는 방식이거나 불안이나 회피행동과 같은 일부 반응만을 측정하였을 뿐 상담자나 내담자의 내현적인 반응들을 직접 측정할 수 없었다. 전이나 역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상담자나 내담자의 내적인 경험들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의 대인 행동에 의해 촉발된 내현적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반향적 메시지 척도(Impact Message Inventory)가 있다. 반향적 메시지(impact message)는 Kiesler(1979, 1982, 1988)가 개념화한 것으로, 두 사람이 상호작용 중에 있을 때 한 사람과 교류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적인 사상들(events)을 말한다. 이것은 직접적인 감정, 행동 경향성, 지각된 촉발 메시지(perceived evoking message), 환상(fantasy) 등을 포

함한다. 반향적 메시지 척도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방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내적인 반응과 지각을 통해서 대인관계적 행동을 기술할 수 있는 연구도구이다(Schmidt, Wagner, & Kiesler, 1999). 그리고 이 척도는 상호작용 동안 일어난 내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있어서 독특하며(Wiggins, 1982),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이 이끌어내는 정서적인 반응들과 다른 내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대인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Kiesler, Schmidt, & Wagner, 1997). 또한 이 척도는 상담자와 내담자 각각의 내적인 반응들을 평가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핵심적인 대인관계패턴을 명세화할 때 외현적인 반응들만을 사용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Kiesler, 1986, 1996).

상담연구에서 반향적 메시지를 측정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행동이 관찰자들에게 어떤 반향적 메시지를 주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Moras, Waterhouse, & Such, 1981; Zians, 1981; Hudgins & Chrico, 1982). 또 Zians(1981)는 반향적 메시지 척도를 이용하여 Albert Ellis, Fritz Perls 그리고 Carl Rogers의 치료적 행동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Wagner, Schmidt, McCormick과 Butler(1999)의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환자와 임상가가 각각 반향적 메시지 척도를 이용하여 서로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서로에 대한 반응들은 어떤지를 평정하였다. 성격장애 유형에 따라 평정된 점수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성격장애 유형들은 적대적인 것과 관계가 있었으며, 히스테리와 자기애적 성격장애 유형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것과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장애 환자들이 임상가들에게 제한된 반응을 보이고, 임상가들의 행동을 오지각하며, 임상가들이 제한된 상호작용 패턴으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향적 메시지에 관한 연구들을 볼 때, 단순히 외현적인 반응만을 살펴보는 것보다 내현적인 대

인반응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반향적 메시지 척도와 같은 내현적 대인반응을 짚 수 있는 타당한 척도가 상담 연구에 아직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향적 메시지 척도는 Kiesler가 말한 반향적 메시지의 구성요소들 중 환상을 제외한 지각된 촉발메시지, 직접적인 감정, 행동 경향성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Wiggins(1989)는 56 문항의 반향적 메시지 원형척도(IMI-C)를 개발하였는데, 완전한 원형구조는 아니지만 통제와 친애 차원을 가진 대인관계 원형차원 상에서 내현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보여진다 (Schmidt, Wagner, & Kiesler, 1999). 그러나 반향적 메시지 원형척도(IMI-C)가 상대방에 대한 지각, 감정, 행동 경향성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문항이 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문항에 치우쳐 있으며, 검사 결과도 대인지각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반향적 메시지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반향적 메시지에 포함된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과 같은 내용들은 유실되고 실제적으로는 대인지각만을 반영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대인반응들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반향적 메시지의 각 요소들을 분리하고 확장하여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대인지각은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을 통해 느끼게 되는 대인관계적인 지각을 말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자(dyads)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지각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자신

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자신에게 통제적인지 의존적인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대인지각에는 지각과 인지 과정이 작용하게 된다. 대인감정은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을 말한다. 대인소망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 등을 포함하여 어떻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말한다. 대인소망은 외현적인 행동으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내현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고 외현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에는 인지, 정서, 행동의 세가지 측면이 각각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내현적 대인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내현적 대인반응의 예비척도를 제작하고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구조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인관계적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여러 대인관계문제 유형들, 사회공포증, 편집증 및 온정성과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으로 구성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제작하여 요인구조와 심리측정적 특성을 조사하고 타당화하여 실제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및 상호작용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 소재 2년제, 4년제 대학생 743명(남:254명, 여:489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3세(표준편차 3.73), 연령범위는 18-50세였다.

전체 피험자 중 260명은(남:107명, 여:153명) 타당도 I군에 해당되고, 254명은(남:78명, 여:176명) 타당도 II군에 해당된다. 타당도 I군은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 함께 대인관계문제 검사와 온정성 척도를 같이 작성하였고, 타당도 II군에서는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 사회공포증, 편집증 척도를 같이 작성하였다.

## 도구

###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예비척도)

Kiesler의 반향적 메시지 척도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을 내현적 대인반응의 구성요소로 정하고, 예비문항을 수집,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우선 대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떠올리고 그 대상과 현재 함께 있다고 상상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소망 등을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여 그 반응들을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 각각에 해당하는 것에 분류하였다. 그리고 반향적 메시지 척도의 문항들, Luborsky와 Crits-Christoph(1998)의 핵심갈등관계주제(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CCRT)의 타인반응, 자기반응, 소망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 및 대인관계형용사 척도 등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행동에 관한 문항들을 참고로 하여 가능한 많은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항들은 가능한 영역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원형모델을 참고로 잠정적인 요인들을 가정하여 문항들을 분류하였다. 이 예비문항들은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 5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되어 확

정되었다. 그리하여 대인지각 89문항, 대인감정 82문항, 대인소망 86문항을 예비문항으로 하는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 5:매우 그렇다) 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상호작용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갈등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작성하였고, 그 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응답하였다.

### 타당도 검증에 사용된 도구

**대인관계문제 검사(KIIP-SC):** 이 척도는 대인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밝히기 위한 검사로서, 통제와 친애 차원을 기본 차원으로 하는 대인관계 원형 모형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이 표준화한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PA(통제지배), BC(자기중심성), DE(냉담), FG(사회적억제), HI(비주장성), JK(과순응성), LM(자기희생), NO(과관여)이다. 이 검사는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1 - .89이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8 - .78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54 - .83이었다

**사회공포증 척도(K-SAD):**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Watson과 Friend(1969)의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AD)를 표준화한 것으로,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요인(16문항)과 불안감 요인(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

도록 되어 있으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2이며, 반분신뢰도는 .94이고, 4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편집성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과 불신, 의심을 중심으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0 - .92이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온정성 척도:** Cattell의 16PF 검사를 염태호와 김정규(1990)가 표준화한 성격요인검사 중 온정성 요인에 해당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내적합치도는 .52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66이었다.

#### 분석방법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는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1.0이다.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서 주성분분석(PCA)에 의한 요인추출을 하였으며, 각 요인들이 서로 상관이 있다고 가정되므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direct oblimin)을 하였다. 사각회전시 8 값은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 각각 -.6, -.8, -.5였다. 요인의 수는 누적분산비율과 스크리(Scree) 도표, 그리고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서 대인관계문제의 8가지 유형, 사회공포증, 편집증, 온정성 각각에 대해서 점수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 특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하였다.

## 결 과

###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요인구조

#### 대인지각의 요인구조

대인지각의 경우, 요인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11개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스크리 검사 결과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10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10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3.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소속문항은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것들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으로 5 - 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내적합치도를 구하면서 어떤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 신뢰도가 더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10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은 예비문항 89문항 중 66문항이었다. 대인지각의 10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과 요인부하량은 표 1과 같다.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 명칭은 연구자가 먼저 작성하고,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1인과 상담심리전문가(박사수료) 3인으로부터 명칭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확정하였다.

표 1을 토대로 각 요인의 문항구성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상대방이 나를 존중

표 1. 대인지각의 요인명칭과 요인별 문항내용 및 요인부하량

요인명칭	문 항 내 용	부하량	문 항 내 용	부하량
1. 존중/지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749	나를 격려해준다	.716
	나를 배려한다	.748	나를 이해한다	.702
	나를 도우려한다	.746	나를 걱정한다	.702
	나를 지지해준다	.728	나를 존중한다	.674
2. 불안정/무력	무기력하다	.814	절망감에 빠져있다	.691
	불안정하다	.753	우울해한다	.635
	불안해한다	.750	혼란스러워한다	.576
	자신감이 없다	.694	위축되어 있다	.513
3. 지배	나에게 권위적이다	.795	나를 자기 뜻에 맞추려고 한다	.778
	나에게 지시적이다	.786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689
	나를 통제한다	.783		
4. 거부	나를 멀리한다	.713	나에게 쌀쌀맞다	.573
	나를 거부한다	.673	나에게 무관심하다	.571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586		
5. 순종	내가 시키는대로 한다	.762	나에게 쉽게 양보한다	.616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동의한다	.751	비주장적이다	.457
	나에게 순종적이다	.724	나에게 의존적이다	.456
	내가 무슨 요구를 해도 수용한다	.716		
6. 친애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한다	.733	나에게 호감이 있다	.650
	나에게 잘 보이려 한다	.688	나를 필요로 한다	.645
	나에게 관심이 있다	.687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622
7. 건방/거만	당돌하다	.708	고집이 세다	.587
	자신만만하다	.681	건방지다	.567
	주도적이다	.658	따지기 좋아한다	.554
8. 공격	나에게 공격적이다	.715	나에게 폭력적이다	.648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	.702	나를 만만하게 본다	.606
	나에게 무례하다	.668	나에게 비판적이다	.599
	나에게 신경질적이다	.651		
9. 경계/회피	나를 불편해한다	.705	나를 두려워한다	.632
	나를 피한다	.703	나를 미워한다	.615
	나를 믿지 않는다	.650	나를 싫어한다	.589
	긴장하고 있다	.646	나에게 방어적이다	.563
10. 우호/신뢰	나에게 마음을 터놓는다	.690	나에게 자상하다	.602
	나에게 다정하다	.685	나에게 친절하다	.565
	나를 신뢰한다	.643	나에게 고마워한다	.552

하고 지지, 격려해주는 것으로 지각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인 1은 ‘존중/지지’로 명명되었다. 요인 2의 문항들을 보면 불안, 우울, 혼란, 절망, 무기력 등과 같이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불안정되어 있고 무력하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므로 ‘불안정/무력’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의 문항들은 상대방이 권위적, 지시적, 통제적이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을 나타내므로 ‘지배’로 명명되었다. 요인 4는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고 멀리하며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거부’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상대방이 내가 시키는대로 순종하고 쉽게 양보한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순종’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6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친애’라고 명명되었다. 요인 7은 상대방이 당돌하고, 고집이 세며, 건방지게 보이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건방/거만’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8은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공격적이

며, 폭력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를 나타내므로 ‘공격’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9는 상대방이 나를 피하고 두려워하며 방어적으로 대한다고 지각되는 내용들을 나타내므로 ‘경계/회피’로 명명되었다. 요인 10의 문항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나를 신뢰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내용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호/신뢰’라고 명명되었다.

대인지각의 각 요인들의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문항-요인 상관, 신뢰도 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대인지각 각 요인들의 문항-요인 상관 평균은 .68 -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지각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80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도 .81 - .9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인지각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는 대인지각의 각 요인들간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대인지각의 각 요인들은 대체로

표 2. 대인지각 요인들의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평균(SD), 문항-요인 상관 및 신뢰도(Cronbach  $\alpha$ )

요인명칭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평균(SD)	평균상관 <sup>1)</sup>	Cronbach $\alpha$
1. 존중/지지	8	31.25	35.11	35.11	24.88(8.39)	.75	.95
2. 불안정/무력	8	8.19	9.21	44.32	16.37(5.99)	.72	.87
3. 지배	5	6.04	6.79	51.11	12.68(4.72)	.80	.81
4. 거부	5	2.41	2.71	53.82	10.77(4.28)	.79	.85
5. 순종	7	1.84	2.07	55.89	16.95(4.99)	.70	.83
6. 친애	6	1.72	1.94	57.83	18.57(5.39)	.68	.88
7. 건방/거만	6	1.43	1.60	59.43	16.90(4.94)	.68	.83
8. 공격	7	1.29	1.45	60.88	15.45(6.62)	.70	.91
9. 경계/회피	8	1.21	1.36	62.24	16.14(6.07)	.73	.87
10. 우호/신뢰	6	1.05	1.18	63.42	18.53(6.02)	.85	.92

<sup>1)</sup> 특정 요인에 소속된 문항점수와 요인점수간의 상관을 각 문항들에 걸쳐 평균한 것임.

표 3. 대인지각의 요인간 상관 (N=723-735)

요인명칭	1.존중/ 지지	2.불안정/ 무력	3.지배	4.거부	5.순종	6.친애	7.건방/ 거만	8.공격	9.경계/ 회피
1. 존중/지지									
2. 불안정/무력	-.24**								
3. 지배	-.40**	.24**							
4. 거부	-.68**	.25**	.40**						
5. 순종	.65**	.10**	-.33**	-.46**					
6. 친애	.73**	-.01	-.17**	-.64**	.65**				
7. 건방/거만	-.43**	.10*	.63**	.44**	-.44**	-.26**			
8. 공격	-.66**	.30**	.71**	.64**	-.50**	-.44**	.69**		
9. 경계/회피	-.63**	.53**	.40**	.74**	-.30**	-.46**	.39**	.64**	
10. 우호/신뢰	.89**	-.19**	-.38**	-.71**	.69**	.77**	-.42**	-.65**	-.64**

\*  $p < .05$ , \*\*  $p < .01$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 지각과 관련된 요인인 친애, 우호/신뢰, 존중/지지, 순종 요인들 간에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부정적 지각과 관련된 요인인 공격, 거부, 지배, 건방/거만, 불안정/무력, 회피 요인들 간에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긍정적 지각에 관련된 요인들과 부정적 지각에 관련된 요인들 간에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대인감정의 요인구조

대인감정의 경우, 요인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9개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스크리 검사 결과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8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8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6.3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소속문항은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것들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으로 5 - 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내적합치도를 구하면서 어떤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 신뢰도가 더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8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은 예비문항 82문항 중 57문항이었다. 대인감정의 8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과 요인부하량은 표 4와 같다.

표 4를 토대로 각 요인의 문항구성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의 문항들은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나고 싫어하는 감정이 중심이 된다. 그리하여 '혐오/분노'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잘못해서 느끼게 되는 미안함, 죄책감, 자책, 후회,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치/죄책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의 문항들은 상대방에 대해 가엾고 불쌍하게 느끼고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는 내

표 4. 대인감정의 요인명칭과 요인별 문항내용 및 요인부하량

요인명칭	문항내용	부하량	문항내용	부하량
1. 혐오/분노	지겹다	.751	화가 난다	.708
	짜증난다	.748	상대방이 밉다	.673
	상대방이 싫다	.714	상대방이 괘씸하다	.656
	불쾌하다	.709	상대방에 대해 실망스럽다	.655
2. 수치/죄책감	죄책감이 든다	.817	내가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다	.730
	미안하다	.802	부끄럽다	.554
	나 스스로를 비난한다	.773	후회스럽다	.532
3. 연민/동정	상대방이 안쓰럽다	.867	상대방이 불쌍하다	.831
	상대방이 가엾다	.851	상대방이 측은하다	.817
	상대방이 딱하다	.845	상대방에 대해 안타깝다	.793
	상대방에 대해 동정심이 든다	.839	상대방에 대해 연민이 든다	.737
4. 자신감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754	자신감이 생긴다	.621
	나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다	.685	뿌듯하다	.512
	유능감이 느껴진다	.644		
5. 불안/난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758	긴장된다	.690
	어색하다	.738	거리감이 든다	.642
	상대방을 대하기 조심스럽다	.724	난감하다	.627
	상대방이 부담스럽다	.691	당황스럽다	.574
6. 두려움/무력감	상대방이 두렵다	.771	상대방에게 압도되는 느낌이다	.701
	상대방이 무섭다	.743	무기력해진다	.658
	좌절감이 든다	.718	열등감이 든다	.539
7. 애정/기쁨/신뢰	기쁘다	.784	친밀감이 느껴진다	.754
	고맙다	.774	힘이 난다	.741
	즐겁다	.772	편안하다	.719
	애정이 느껴진다	.767	신뢰감이 느껴진다	.707
8. 우울/질투심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678	외롭다	.628
	질투심이 든다	.673	우울하다	.603
	상대방이 알밋다	.641	혼란스럽다	.585
	자존심이 상한다	.631	슬프다	.542

용어에서 ‘연민/동정’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4의 문항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 만족감, 유능감이 같이 들어 있어서 ‘자신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

르고,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난감해하는 내용들이어서 ‘불안/난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6은 상대방에게 두렵고 압도되는 느낌과 함께 열등감과 무기력감을 가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표 5. 대인감정 요인들의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평균(SD), 문항-요인 상관 및 신뢰도(Cronbach  $\alpha$ )

요인명칭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평균(SD)	평균상관 <sup>1)</sup>	Cronbach $\alpha$
1. 혐오/분노	8	32.48	39.60	39.60	16.60(8.36)	.82	.96
2. 수치/죄책감	6	8.87	10.81	50.41	12.50(5.25)	.75	.84
3. 연민/동정	8	4.61	5.62	56.03	17.92(7.88)	.82	.93
4. 자신감	5	2.82	3.44	59.47	13.21(4.12)	.74	.79
5. 불안/난감	8	1.58	1.93	61.40	20.29(7.21)	.73	.88
6. 두려움/무력감	6	1.51	1.84	63.24	11.60(4.77)	.74	.83
7. 애정/기쁨/신뢰	8	1.35	1.64	64.88	23.67(9.79)	.90	.96
8. 우울/질투심	8	1.23	1.50	66.38	18.49(7.01)	.71	.86

<sup>1)</sup> 특정 요인에 소속된 문항점수와 요인점수간의 상관을 각 문항들에 걸쳐 평균한 것임.

서 ‘두려움/무력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7은 상대방에 대해 사랑과 애정을 느끼며, 기쁨, 고마움, 신뢰감, 편안함과 같은 감정이 수반되어 있으므로 ‘애정/기쁨/신뢰’로 명명되었다. 요인 8은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 알미움과 자존심 상함,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울/질투심’으로 명명되었다.

대인감정의 각 요인들의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문항-요인 상관, 신뢰도 등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대인감정 각 요인들의 문항-요인 상관 평균은 .71 - .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감정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90이고 각

표 6. 대인감정의 요인간 상관 (N=721-732)

요인명칭	1. 혐오/분노	2. 수치/죄책감	3. 연민/동정	4. 자신감	5. 불안/난감	6. 무력/위압감	7. 애정/기쁨/신뢰
1. 혐오/분노							
2. 수치/죄책감	.36**						
3. 연민/동정	.46**	.45**					
4. 자신감	-.43**	-.20**	-.03				
5. 불안/난감	.70**	.55**	.39**	-.46**			
6. 두려움/무력감	.57**	.58**	.32**	-.31**	.64**		
7. 애정/기쁨/신뢰	-.79**	-.14**	-.26**	.67**	-.62**	-.39**	
8. 우울/질투심	.76**	.62**	.39**	-.39**	.75**	.72**	-.53**

\*  $p < .05$ , \*\*  $p < .01$

요인별 신뢰도도 .79 - .9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인감정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6에는 대인감정의 각 요인들간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대인감정의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연민/동정 요인과 자신감 요인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감정인 애정/기쁨/신뢰와 자신감 요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정적 감정인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연민/동정,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 요인들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요인들과 부정적 감정에 관련된 요인들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대인소망의 요인구조

대인소망의 경우, 요인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9개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스크리 검사 결과와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9요인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9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7.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소속문항은 요인부하량이 .35이상인 것들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으로 5 - 8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내적합치도를 구하면서 어떤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 신뢰도가 더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문항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9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은 예비문항 86문항 중 58 문항이었다. 대인소망의 9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과 요인부하량은 표 7과 같다.

표 7을 토대로 각 요인의 문항구성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의 문항들은 상대방을

보살펴주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며, 돕고 싶은 내용들이 주가 되므로 '보호/조력'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망이 중심이 되므로 '통제'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상대방에게 모두 맡기고 따르며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순종/의지'로 명명되었다. 요인 4의 문항들은 상대방에게 구속, 간섭받고 싶지 않고, 독립하고 싶은 소망들이어서 '독립'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상대방에게 대항, 반항하고 벗어나고 싶은 소망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항'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6을 보면,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며, 관심을 받고 싶은 소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정·애정갈망'으로 명명되어졌다. 요인 7은 더 유능해지고 발전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소망들을 나타내므로 '성장/발전'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8의 문항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고, 갈등을 피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소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방어/회피'로 명명되어졌다. 요인 9의 문항들은 상대방에게 상처주고 복수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를 해주거나 말을 건네는 것조차 내키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소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공격/거부'로 명명되어졌다.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의 문항 수, 고유치, 설명변량, 문항-요인 상관, 신뢰도 등은 표 8에 나타나 있다. 대인소망 각 요인들의 문항-요인 상관 평균은 .64 - .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인소망의 전체 내적 합치도 지수( $\alpha$ )는 .88이고 각 요인별 신뢰도도 .64 - .89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대인소망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9에는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간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대인소망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보면, 독립 요인과 인정·애정갈망

표 7. 대인소망의 요인명칭과 요인별 문항내용 및 요인부하량

요인명칭	문항내용	부하량	문항내용	부하량
1. 보호/조력	보살펴주고 싶다	.832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815
	안심시켜 주고 싶다	.824	돕고 싶다	.810
	기쁘게 해주고 싶다	.819	칭찬하고 싶다	.801
	즐겁게 해주고 싶다	.819	격려하고 싶다	.785
2. 통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741	상대방을 이기고 싶다	.652
	통제하고 싶다	.730	야단을 치고 싶다	.616
	휘어잡고 싶다	.727		
3. 순종/의지	나를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	.775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싶다	.736
	상대방에게 모두 맡기고 싶다	.763	보살핌을 받고 싶다	.690
	대신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756	의지하고 싶다	.667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	.751	본받고 싶다	.568
4. 독립	독립적이고 싶다	.769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	.559
	구속받고 싶지 않다	.681	본연의 내 자신이 되고 싶다	.548
	내 스스로 하고 싶다	.638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373
	간섭받고 싶지 않다	.595		
5. 저항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	.729	거리를 두고 싶다	.578
	벗어나고 싶다	.640	반항하고 싶다	.570
	대항하고 싶다	.606	내 주장을 하고 싶다	.444
6. 인정·애정갈망	이해받고 싶다	.756	나에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683
	나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732	관심을 받고 싶다	.675
	마음을 터놓고 싶다	.699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644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695		
7. 성장/발전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	.846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672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825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	.552
	더 유능하고 싶다	.767		
8. 방어/회피	상처받고 싶지 않다	.679	피하고 싶다	.602
	갈등을 피하고 싶다	.648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다	.583
	엿매이고 싶지 않다	.602		
9. 공격/거부	모욕을 주고 싶다	.785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703
	욕해주고 싶다	.757	아무 것도 해주기 싫다	.691
	상처주고 싶다	.733	말도 하기 싫다	.676
	복수하고 싶다	.708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	.661

표 8. 대인소망 요인들의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평균(SD), 문항-요인 상관 및 신뢰도(Cronbach  $\alpha$ )

요인명칭	문항수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평균(SD)	평균상관 <sup>1)</sup>	Cronbach $\alpha$
1. 보호/조력	8	35.18	40.90	40.90	25.17(9.78)	.89	.96
2. 통제	5	10.06	11.69	52.59	11.31(4.81)	.77	.83
3. 순종/의지	8	3.44	4.01	56.60	19.02(7.28)	.76	.89
4. 독립	7	2.39	2.78	61.11	21.22(5.30)	.64	.76
5. 저항	6	1.48	1.73	62.80	15.90(5.63)	.65	.84
6. 인정·애정갈망	7	1.45	1.69	64.33	24.10(7.03)	.79	.90
7. 성장/발전	5	1.31	1.53	64.33	18.00(4.82)	.77	.83
8. 방어/회피	5	1.25	1.45	65.78	14.80(4.62)	.71	.75
9. 공격/거부	8	1.11	1.29	67.07	15.37(8.23)	.83	.93

<sup>1)</sup> 특정 요인에 소속된 문항점수와 요인점수간의 상관을 각 문항들에 걸쳐 평균한 것임.

표 9. 대인소망의 요인간 상관(N=724-738)

요인명칭	1.보호/ 조력	2. 통제	3.순종/ 의지	4. 독립	5. 저항	6. 인정· 애정갈망	7. 성장/ 발전	8. 방어/ 회피
1. 보호/조력								
2. 통제	-.33**							
3. 순종/의지	.75**	-.14**						
4. 독립	-.23**	.43**	-.17**					
5. 저항	-.57**	.63**	-.38**	.66**				
6. 인정·애정갈망	.80**	-.17**	.67**	-.04	-.37**			
7. 성장/발전	.59**	.09*	.48**	.16**	-.12**	.71**		
8. 방어/회피	-.43**	.49**	-.32**	.71**	.72**	-.20**	.01	
9. 공격/거부	-.69**	.66**	-.43**	.44**	.77**	-.55**	-.28**	.61**

\*  $p < .05$ , \*\*  $p < .01$

요인, 성장/발전 요인과 방어/회피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요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망인 보호/조력, 순종/의지,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 요인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부정적인 소망인 통제, 독립, 저항, 방어/회피, 공격/거부 요인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소망과 관련된 요인들과 부정적인 소망과 관련된 요인들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각 요인과 다른 척도와의 관계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대인관계문제 유형들과 정신과적인 증상 중 대인관계 특성이 뚜렷한 사회공포증과 편집증, 그리고 건강한 대인특성 중 하나인 온정성을 선정하여 내현적 대인반응인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피험자들은 현재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작성하였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대인관계문제의 8가지 유형, 사회공포증, 편집증, 온정성 각각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각 특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하였다. 표 10, 표 11-1, 표 11-2, 표 11-3, 표 12-1, 표 12-2는 각각 대인관계문제(8유형), 사회공포증, 편집증, 온정성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에서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 것만 제시하였다.

먼저 각 대인관계문제 유형들과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에서의 차이를 보면(표 10), 통제지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불안정/무력, 경계/회피로 지각되는 사람들과 갈등을 잘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불안정/무력, 공격, 경계/회피로 지각되는 사람들과 갈등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지배 성격을 띠는 이 유형들에 비해 우호적 순종의 성격을 띠는 과순응성 유형과 우호적 지배 성격을 띠는 과관여 유형의 경우에는 긍정적 대인지각 요인인 순종, 친애, 우호/신뢰로 지각되는

사람들과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통제지배 유형과 자기중심성 유형의 대인관계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사람들과 주로 갈등을 많이 겪고 과순응성 유형과 과관여 유형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적이고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자의 유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잘 행동하지는 않지만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적이거나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게 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 유형 중 냉담과 사회적 억제, 그리고 사회공포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대인지각 요인이 없었다. 이것은 이 유형들의 특성상 특정 대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대인지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희생 유형의 경우도 대인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없는 데, 이것은 앞의 유형들과는 달리 이 유형이 타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욕구를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형과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별로 겪지 않고 아예 대인관계 자체를 잘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공포증과 달리 편집증의 경우에는 부정적 대인지각 요인들인 불안정/무력, 지배, 거부, 건방/거만, 공격, 경계/회피 요인들에서 모두 유의미한

표 10. 대인관계문제, 편집증의 대인지각 요인들에서의 차이

변수	집단	N	평균(SD)	df	t-값
불안정/무력	통제지배고	125	16.58(5.24)	248	3.11**
	통제지배저	125	14.41(5.76)		
경계/회피	통제지배고	125	19.09(5.84)	250	3.11**
	통제지배저	127	16.86(5.55)		
불안정/무력	자기중심성고	122	16.39(5.35)	247	2.65**
	자기중심성저	127	14.52(5.75)		
공격	자기중심성고	126	18.74(5.85)	250	2.17*
	자기중심성저	126	16.90(7.44)		
경계/회피	자기중심성고	125	18.86(5.19)	249	2.51*
	자기중심성저	126	17.05(6.22)		
공격	비주장성고	120	18.83(5.98)	252	2.18*
	비주장성저	134	17.00(7.26)		
순종의지	과순응성고	133	16.11(4.84)	251	2.13*
	과순응성저	120	14.81(4.82)		
친애	과순응성고	136	17.59(5.18)	255	2.00*
	과순응성저	121	16.30(5.14)		
우호/신뢰	과순응성고	136	17.31(5.25)	254	2.63**
	과순응성저	120	15.49(5.80)		
순종의지	과관여고	117	16.21(5.05)	250	2.27*
	과관여저	135	14.83(4.63)		
친애	과관여고	119	17.87(5.41)	254	2.60**
	과관여저	137	16.19(4.89)		
우호/신뢰	과관여고	118	17.28(5.67)	253	2.24*
	과관여저	137	15.72(5.44)		
불안정/무력	편집증고	103	16.60(5.71)	246	2.45*
	편집증저	145	14.88(5.28)		
지배	편집증고	105	14.73(4.59)	251	3.38**
	편집증저	148	12.77(4.52)		
거부	편집증고	104	12.52(3.85)	248	2.54*
	편집증저	146	11.25(3.92)		
건방/거만	편집증고	104	18.98(5.21)	248	2.72**
	편집증저	146	17.22(4.95)		
공격	편집증고	106	18.43(6.12)	251	2.90**
	편집증저	147	16.18(6.08)		
경계/회피	편집증고	105	18.99(5.24)	249	2.78**
	편집증저	144	16.90(6.28)		

\*  $p < .05$ , \*\*  $p < .01$

표 11-1. 대인관계문제 유형들의 대인감정요인들에서의 차이 I

변수	집단	N	평균(SD)	df	t-값
협오/분노	통제지배고	128	21.08(7.72)	248	3.20**
	통제지배저	122	17.92(7.89)		
수치/죄책감	통제지배고	131	14.93(5.63)	253	4.58***
	통제지배저	124	11.92(4.82)		
연민/동정	통제지배고	130	20.40(7.99)	251	3.38***
	통제지배저	123	17.10(7.52)		
불안/난감	통제지배고	128	23.85(6.43)	249	3.14**
	통제지배저	123	21.24(6.73)		
두려움/무력감	통제지배고	129	14.11(4.92)	252	4.31***
	통제지배저	125	11.62(4.26)		
우울/질투심	통제지배고	127	22.77(6.58)	250	5.67***
	통제지배저	125	18.45(5.47)		
협오/분노	자기중심성고	123	20.54(7.61)	247	2.15*
	자기중심성저	126	18.37(8.28)		
수치/죄책감	자기중심성고	128	14.14(4.91)	252	2.33*
	자기중심성저	126	12.58(5.74)		
불안/난감	자기중심성고	124	23.40(5.83)	248	2.07*
	자기중심성저	126	21.66(7.36)		
두려움/무력감	자기중심성고	126	13.87(4.43)	251	3.49***
	자기중심성저	127	11.82(4.88)		
우울/질투심	자기중심성고	125	21.68(5.79)	250	2.77**
	자기중심성저	127	19.46(6.87)		
수치/죄책감	냉담고	125	14.98(5.42)	255	4.57***
	냉담저	132	11.98(5.07)		
자신감	냉담고	125	11.47(3.72)	254	-2.22*
	냉담저	131	12.56(4.15)		
불안/난감	냉담고	122	23.68(6.51)	251	2.62**
	냉담저	131	21.50(6.67)		
두려움/무력감	냉담고	124	13.94(4.70)	254	3.58***
	냉담저	132	11.86(4.61)		
우울/질투심	냉담고	123	21.86(6.35)	252	3.14**
	냉담저	131	19.37(6.27)		
수치/죄책감	사회적억제고	130	14.95(5.41)	253	4.65***
	사회적억제저	125	11.90(5.06)		
자신감	사회적억제고	130	11.25(3.65)	252	-3.10**
	사회적억제저	124	12.77(4.16)		
두려움/무력감	사회적억제고	129	13.95(4.82)	252	3.82***
	사회적억제저	125	11.73(4.45)		
우울/질투심	사회적억제고	129	21.91(6.44)	250	3.39***
	사회적억제저	123	19.22(6.1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1-2. 대인관계문제유형들의 대인감정 요인들에서의 차이II

변수	집단	N	평균(SD)	df	t-값
수치/죄책감	비주장성고	121	19.84(7.60)	254	3.84***
	비주장성저	135	19.08(8.31)		
자신감	비주장성고	121	11.46(3.72)	253	-2.15*
	비주장성저	134	12.53(4.15)		
두려움/무력감	비주장성고	120	14.06(4.76)	253	3.94***
	비주장성저	135	11.77(4.51)		
우울/질투심	비주장성고	119	21.80(6.07)	251	2.94**
	비주장성저	134	19.46(6.55)		
수치/죄책감	과순응성고	135	14.63(5.52)	254	3.84***
	과순응성저	121	12.08(5.05)		
두려움/무력감	과순응성고	134	13.79(4.88)	253	3.35***
	과순응성저	121	11.83(4.42)		
우울/질투심	과순응성고	133	21.69(6.47)	251	3.00**
	과순응성저	120	19.30(6.16)		
수치/죄책감	자기희생고	112	14.54(8.23)	252	2.99**
	자기희생저	140	12.51(4.94)		
불안/난감	자기희생고	110	23.64(6.65)	248	2.42*
	자기희생저	140	21.59(6.59)		
두려움/무력감	자기희생고	112	13.60(4.86)	251	2.23*
	자기희생저	141	12.26(4.63)		
우울/질투심	자기희생고	111	22.05(6.65)	249	3.27***
	자기희생저	140	19.42(6.03)		
혐오/분노	과관여고	118	20.67(8.05)	248	2.16*
	과관여저	132	18.51(7.76)		
수치/죄책감	과관여고	119	15.06(5.85)	253	4.50***
	과관여저	136	12.10(4.66)		
불안/난감	과관여고	116	23.93(6.81)	249	2.94**
	과관여저	135	21.49(6.34)		
두려움/무력감	과관여고	118	13.96(4.73)	252	3.43***
	과관여저	136	11.94(4.62)		
우울/질투심	과관여고	116	22.50(6.42)	250	4.42***
	과관여저	136	19.04(5.9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1-3. 사회공포증, 편집증의 대인감정 요인들에서의 차이

변수	집단	N	평균(SD)	df	t-값
자신감	사회공포증고	123	11.80(3.27)	248	-2.13*
	사회공포증저	127	12.84(4.38)		
애정/기쁨/신뢰	사회공포증고	123	18.65(7.35)	248	-2.06*
	사회공포증저	127	20.81(9.12)		
혐오/분노	편집증고	105	21.53(7.78)	250	3.02**
	편집증저	147	18.46(8.14)		
수치/죄책감	편집증고	105	14.28(5.09)	249	4.19***
	편집증저	146	11.59(4.96)		
불안/난감	편집증고	105	23.54(6.47)	248	2.74**
	편집증저	145	21.17(6.97)		
두려움/무력감	편집증고	104	13.55(4.36)	247	2.96**
	편집증저	145	11.70(5.20)		
우울/질투심	편집증고	105	22.28(6.12)	248	3.91***
	편집증저	145	18.97(6.95)		

\*  $p < .05$ , \*\*  $p < .01$ , \*\*\*  $p < .001$ 

차이를 보였다. 이것으로 편집증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향이 있다(이훈진, 원호택, 1998)는 것을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여러 유형의 대인관계문제들, 사회공포증, 그리고 편집증의 갈등관계에서의 대인감정 차이를 보면(표 11-1, 표 11-2, 표 11-3), 통제지배와 자기중심성 유형의 사람들은 갈등관계에서 주로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두 유형 중 더 적대적인 성향이 있는 자기중심성에 비해 통제지배 유형은 연민/동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담형의 경우는 혐오/분노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적 감정들에서 차이를 보였고, 냉담형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갈등관

계에서 자신감을 적게 느꼈다. 한편 사회적억제 및 비주장성 유형은 수치/죄책감,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 유형의 점수가 높으면 자신감을 적게 느꼈다. 이것은 이 유형들의 특성상 대인관계의 통제 차원 상에서 낮은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낮고, 갈등관계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과순응성과 자기희생의 경우는 혐오/분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치/죄책감,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과순응성과 달리 자기희생 유형의 경우 불안/난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이 유형들이 타인지향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자기희생 유형이 대인관계에서 더 우호적인 성향을 띠므로 갈등관계 자체를 더 힘들게 느낄 가능성이 많다.

자기희생과 과관여 유형의 경우를 보면, 갈등관계에서 수치/죄책감, 두려움/무력감, 불안/난감, 우울/질투심 등을 주로 느끼는데, 과관여 유형은 혐오/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자기희생 유형보다 과관여 유형이 통제 차원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희생적인 유형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데 비해 과관여 유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갈등관계에서 혐오/분노를 잘 경험하는 유형은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세 유형인데 이들 유형은 모두 통제차원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는 유형들이다.

갈등관계에서 자신감을 경험하는 것과 성격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냉담, 사회적억제, 비주장성, 사회공포증 점수가 높으면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의 공통점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거나 회피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공포증과 갈등관계에서의 대인감정과의 관계를 보면, 자신감, 애정/기쁨/신뢰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공포증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편집증의 경우에는, 자신감, 연민/동정, 애정/기쁨/신뢰를 제외한 부정적 감정 요인들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공포증의 특징인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신감이나 애정/기쁨/신뢰를 잘 경험하기 어려우며, 편집증은 갈등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부정적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갈등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 성격변인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성격변인들이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소망에

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면(표 12-1, 표 12-2), 통제지배 유형과 자기중심성 유형은 긍정적 대인소망인 보호/조력, 독립,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을 제외한 부정적 대인소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냉담, 사회적 억제, 그리고 비주장성 유형은 부정적 대인소망 중 통제, 저항, 공격/거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순종/의지, 방어/회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이 유형들이 통제적이지는 않고 적대적이거나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저항하고 공격/거부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순종하거나 방어, 회피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통제차원에서 가장 순종적인 특징을 가지는 과순응성의 경우는 보호/조력, 순종/의지, 인정·애정갈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기희생 유형에서는 순종/의지, 독립,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 방어/회피 요인들에서 차이를 보여서 과순응성 유형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보호하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이 두 유형보다 좀더 통제적인 위치에 있는 과관여 유형에서는 통제, 저항, 성장/발전, 방어/회피, 공격/거부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갈등관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공포증의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소망은 성장/발전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인지각과 대인감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사회공포증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 대인관계 자체를 기피하고 자신감도 낮으며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려는 욕구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집증의 경우에는 통제, 독립, 저항, 방어/회피, 공격/거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표 12.-1. 대인관계문제유형들의 대인소망에서의 차이

변수	집단	N	평균(SD)	df	t-값
통제	통제지배고	131	12.97(4.87)	253	2.76**
	통제지배저	124	11.25(5.07)		
순종/의지	통제지배고	131	18.31(7.39)	253	2.51**
	통제지배저	124	16.06(6.81)		
저항	통제지배고	130	18.51(5.24)	253	2.43*
	통제지배저	125	16.81(5.92)		
방어/회피	통제지배고	131	16.91(4.18)	253	3.24***
	통제지배저	124	15.13(4.59)		
공격/거부	통제지배고	129	19.46(8.09)	250	3.31***
	통제지배저	123	16.03(8.33)		
통제	자기중심성고	128	12.92(4.70)	252	2.52*
	자기중심성저	126	11.35(5.25)		
순종/의지	자기중심성고	127	18.38(6.84)	252	2.69**
	자기중심성저	127	15.98(7.35)		
저항	자기중심성고	127	18.42(5.09)	252	2.18*
	자기중심성저	127	16.89(6.05)		
방어/회피	자기중심성고	128	16.66(3.97)	252	2.24*
	자기중심성저	126	15.41(4.85)		
공격/거부	자기중심성고	126	19.68(8.06)	249	3.72***
	자기중심성저	125	15.83(8.32)		
순종/의지	냉담고	126	18.38(7.63)	255	2.58**
	냉담저	131	16.10(6.52)		
독립	냉담고	125	22.96(5.17)	252	1.20*
	냉담저	129	21.58(5.81)		
방어/회피	냉담고	125	16.72(4.00)	255	2.38*
	냉담저	132	15.41(4.76)		
순종/의지	사회적억제고	130	18.32(7.54)	253	2.63**
	사회적억제저	125	15.98(6.57)		
방어/회피	사회적억제고	130	16.72(4.10)	253	2.43*
	사회적억제저	125	15.37(4.73)		
순종/의지	비주장성고	122	18.19(7.33)	254	2.15*
	비주장성저	134	16.18(6.90)		
방어/회피	비주장성고	122	16.72(3.96)	254	2.35*
	비주장성저	134	15.43(4.79)		
보호/조력	과순응성고	134	23.07(9.29)	252	2.07*
	과순응성저	120	20.57(10.03)		
순종/의지	과순응성고	136	19.90(7.37)	254	4.09***
	과순응성저	120	15.34(6.46)		
인정 · 애정갈망	과순응성고	133	23.35(6.81)	250	2.52*
	과순응성저	119	21.09(7.4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2-2. 대인관계문제유형, 사회공포증, 편집증의 대인소망에서의 차이

변수	집단	N	평균(SD)	df	t-값
순종/의지	자기희생고	113	18.36(7.72)	252	2.37*
	자기희생저	141	16.25(6.52)		
독립	자기희생고	112	23.21(5.46)	248	2.59**
	자기희생저	139	21.42(5.44)		
인정·애정갈망	자기희생고	111	23.66(7.19)	248	2.74**
	자기희생저	139	21.18(7.03)		
성장/발전	자기희생고	113	18.12(4.47)	253	2.79**
	자기희생저	142	16.43(5.07)		
방어/회피	자기희생고	112	16.94(4.44)	252	2.95**
	자기희생저	142	15.30(4.34)		
통제	과관여고	118	12.90(5.16)	253	2.27*
	과관여저	137	11.47(4.85)		
저항	과관여고	119	18.54(5.62)	253	2.27*
	과관여저	136	16.95(5.56)		
성장/발전	과관여고	119	17.96(4.44)	254	2.42*
	과관여저	137	16.50(5.10)		
방어/회피	과관여고	118	16.83(4.29)	253	2.51*
	과관여저	137	15.45(4.48)		
공격/거부	과관여고	116	18.91(8.47)	250	2.01*
	과관여저	136	16.80(8.20)		
성장/발전	사회공포증고	125	16.29(4.54)	250	-2.16*
	사회공포증저	127	17.62(5.22)		
통제	편집증고	106	13.61(4.22)	250	3.23***
	편집증저	146	11.72(4.84)		
독립	편집증고	106	22.92(4.82)	249	2.63**
	편집증저	145	21.19(5.32)		
저항	편집증고	105	18.84(5.08)	248	3.22***
	편집증저	145	16.61(5.63)		
방어/회피	편집증고	105	16.72(4.36)	248	2.72**
	편집증저	145	15.16(4.58)		
공격/거부	편집증고	105	19.75(8.58)	247	2.59**
	편집증저	144	16.88(8.70)		

\*  $p < .05$ , \*\*  $p < .01$ , \*\*\*  $p < .001$

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서 편집증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인소망은 별로 없고 주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정성의 경우  $t$ -검증을 통해서도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인감정 요인들 중 수치/죄책감( $r=-.19, p<.01$ ), 자신감( $r=.14, p<.05$ ), 우울/질투심( $r=-.11, p<.05$ )과 약하지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소망 요인들에서는 순종/의지( $r=-.12, p<.05$ ), 공격/거부( $r=-.11, p<.05$ )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로는 온정성이 위에서 살펴본 다른 성격변인들만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온정적인 사람들은 온정적인 성격특성으로 인해 타인들과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타인에게 쉽게 순종하지 않고 공격하거나 거부하는 행동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통해서 다양한 대인관계문제 유형들과 대인공포증과 편집증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의 대인관계적 특징들이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에서 차별적으로 잘 반영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

계 및 상호작용 연구 등 상담과정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대인반응을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예비척도를 만들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인지각에서는 존중/지지, 불안정/무력, 지배, 거부, 순종, 친애, 건방/거만, 공격, 경계/회피, 우호/신뢰의 10개의 요인을 발견하였다. 대인감정에서는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연민/동정, 자신감,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애정/기쁨/신뢰, 우울/질투심의 8가지 요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인소망에는 보호/조력, 통제, 순종/의지, 독립, 저항,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 방어/회피, 공격/거부의 9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대인지각과 대인소망의 요인들을 대인관계 원형모델 상의 지배, 적대적 지배, 적대, 적대적 순종, 순종, 우호적 순종, 우호, 우호적 지배에 대비시켜 보면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감정에 있어서도 Plutchik(1980)가 말한 인간의 기본정서인 공포, 분노, 기쁨, 슬픔, 혐오, 놀람, 기대, 수용 중 놀람, 기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서를 다 포함하고 있고, 놀람, 기대 대신에 2차 정서인 수치/죄책감, 자신감, 연민/동정이 나타났다. 정서는 감정 이외에 신체·생리적 반응과 행동경향성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대인감정으로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놀람, 기대보다 수치/죄책감, 자신감, 연민/동정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을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에 비해 부정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처음 예비문항을 만들 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비슷하게 상정하고 제작하였었는데, 요인분석 결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함께 묶여지고 부정적인 요인이 두

요인으로 나뉘어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negativity effect)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다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부정적인 정보는 위협적이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세분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서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보아도 긍정적인 정서 수보다 부정적인 정서 수가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각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는 지각, 감정, 소망 등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양가적인 것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각 요인들이 서로 간에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척도는 각 요인 점수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주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과 소속문항들 간의 평균 상관을 보면 .64 - .91로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의 평균 신뢰도는 .87, .87, .85로서(.75 - .97)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관계적 특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인관계문제검사, 사회공포증, 편집증, 온정성 척도들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각 특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내현적 대인반응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요인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차이가 다양한 대인관계문제, 사회공포증, 편집증의 특성들을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내현적 대인반응척도가 신뢰할 만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온정성의 경우,  $t$ -검증을 통해서도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각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온정성 척도를 검토한 결과, 내적합치도도 .52로서 낮은 편이고 대부분의 문항들이 온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 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외향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온정성에 비해 외향성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정성 척도가 온정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타당도 검증에서 사용한 도구들은 대인관계 특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격 변인들을 짚 수 있는 도구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갈등 대상에 대해 평정을 하게 한 것은 좋은 관계에서보다도 나쁜 관계에서의 반응범위가 더 다양하고, 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Barber, Foltz, & Weinryb, 1998). 갈등관계에서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차이가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 유형들, 사회공포증, 편집증의 대인관계적 특성들을 잘 반영해주는 것은 하였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 대인반응들에서의 다양한 차이를 잘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는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 도구를 상담자의 역전이와 내담자의 전이에 관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 감정, 소망과 내담자의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나 대인관계 패턴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내담자의 전이가 상담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들이 내담자에 대한 지각, 감정, 소망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내담자나 성격장애 또는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담자에게 어떤 역전이를 일으키는가를 살펴보는 데도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내현적 대인반응의 변화를 상담 진행과정에 따라서 살펴본다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적 성과 측정치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는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에 대한 독립된 척도들이 한 세트에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 각각을 별개의 척도로 활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들을 피험자로 사용하였는데, 청소년이나 일반인, 그리고 실제 상담을 받는 내담자 등 대학생 이외의 다른 표본에서도 본 연구에서 얻은 요인구조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

구의 내현적 대인반응의 각 요인들에 소속된 문항들은 5 - 8문항으로 균일하지 않고,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맞는 원형구조는 아니다. 본 연구의 내현적 대인반응척도들의 문항을 좀더 보완하여 원형구조를 이루는 척도를 구성하여 기존의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근거한 척도들과 같이 연구에 활용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은, 이장호 (1994).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보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99-118.
- 염태호, 김정규 (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이장호, 조성호 (1995). 초기상담에서 대인권력과 대인관여에서의 상호작용패턴과 상담효율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138-155.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4(1), 83-94.
- 정남운 (1998).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남운 (1999).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 본 내담자 문제와 상담전략.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심리과학*, 8(1), 61-89.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4), 923-940.
- Anchin, J. C., & Kiesler, D. J. (1982).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Elmsford, NY: Pergamon Press.
- Barber, J. P., Foltz, C., & Weinryb, R. M. (1998). The Central Relationship Questionnaire: Initial Re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31-142.
- Hill, C. E., & Highlen, P. S. (1984). Factors affecting client change in individual counseling: Current status and theoretical speculations. In D. B. Steven, & W. L. Rober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334-369). New York: A Wiley Interscience Publication.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6). The development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In L. S. Greenberg, & W. M. Pinsof (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pp. 529-556). New York: Guilford Press.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2.
- Hudgins, M. K., & Chrigo, B. M. (1982). *Interpersonal therapist styles as related to theoretical orientation among first year interns*. Unpublished study,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 Kiesler, D. J. (1979).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alysis of relationship in psychotherapy. *Psychiatry*, 42, 299-311.
- Kiesler, D. J. (1982). Interpersonal theory for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D. J. Kies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 (pp.274-295). Elmsford, NY: Pergamon Press.
- Kiesler, D. J. (1987). Complementarity: Between whom and under what conditions? *Clinician's Research Digest: Supplemental Bulletin*, 5(20).
- Kiesler, D. J. (1988). *Therapeutic metacommunication: Therapist impact disclosure as feedback in psychotherap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Kiesler, D. J. (1991). Interpersonal methods of assessment and diagnosis.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pp. 438-468). Elmsford, NY: Pergamon Press.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Wiley.
- Kiesler, D. J., Schmidt, J. A., & Wagner, C. C. (1997). A circumplex inventory of impact messages: An operational bridge between emotional and interpersonal behavior. In R. Plutchik & H. R. Conte (Eds.), *Circumplex models of personality and emotions* (pp. 221-24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1998).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2nd ed.). New York: Basic Books.
- Moras, K., Waterhouse, G. J., & Such, C. (1981). *Toward a standard, pantheoretical measure of therapist relationship variable: The Impact Message Invent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Aspen, CO.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es*. New York: Grune & Stratton.
- Schmidt, J. A. (1994). *Revision of Impact Message*

- Inventory: Reconstruction to a circumplex criter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VA.
- Schmidt, J. A., Wagner, C. C., & Kiesler, D. J. (1999). Psychometric and Circumplex Properties of the Octant Scale Impact Message Inventory (IMI-C): A Structural Evalu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25-334.
- Strong, S. R., & Claiborn, C. D. (1982). *Change through interaction: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Strupp, H. H., & Hadley, S. W. (1979). Specific versu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 controlled study of outcom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6*, 1125-1236.
- Wagner, C. C., Kiesler, D. J., & Schmidt, J. A. (1995). Assessing the interpersonal transaction cycle: convergence of action and reaction interpersonal circumplex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38-949.
- Wagner C. C., Schmidt, J. A., McCormick, M. F., & Butler, S. F. (1999). Personality disorder styles and reciprocal interpersonal impacts during outpatient intake interviews. *Psychotherapy Research, 9*(2), 216-231.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 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Watzlawick, P., & Weakland, J. (1977). *The Interactional View.* New York: Norton.
- Wiggins, J. S. (1982). Circumplex models of interpersonal behavior in clinical psychology. In P. C. Kendall & J. N. Butcher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linical psychology* (pp. 183-221). New York: Wiley.
- Zians, J. K. (1981). *Broadening the Impact Message Inventory for use by an uninvolved rater.*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Vanderbilt University, Nashville, TN.

원 고 접 수 일 : 2004. 6. 4

수정원고접수일 : 2004. 7. 21

게 재 결 정 일 : 2004. 8. 3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Ji-Eun Kim

Seong-Ho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and examine its validation.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which consists of interpersonal perception, interpersonal feeling and interpersonal wish was formed and administered to 754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Factor analysis on the interpersonal perception indicated that 10 factor structure is most meaningful. 8 factors were discovered in interpersonal feeling scale. And 9 factors were discovered in interpersonal wish scale.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showed high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Correlation analysis on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and KIIP-SC, K-SAD, Paranoia scale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in the interpersonal perception, interpersonal feeling and interpersonal wish of conflictual relation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problems, social phobia and paranoia. The validity of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In addition, the practical use of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interpersonal perception, interpersonal feeling, interpersonal wish